



즉시 배포용: 2021년 12월 2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MTA 지하철역 임시 백신접종 사이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지하철역 두 곳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다음 주에 지하철역 다섯 곳으로 확대할 예정

임시 접종 사이트,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의 겨울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다음 주부터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지하철역 임시 백신접종 사이트에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시의 지하철역에서 주정부 지원 코로나19 PCR 테스트가 최초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시민들이 가능한 한 폭넓고 쉽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TA 지하철역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현장 방문 테스트 기회는 더 많은 테스트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이번 겨울철 급증 기간 동안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현장 방문 PCR 검사는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7일 동안 맨해튼 타임스퀘어-42번가 지하철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실시됩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에는 이 두 곳에서 테스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뉴욕시 전역의 5개 추가 접종 장소에서 다음 주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테스트 날짜와 시간은 최종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테스트 프로그램은 뉴욕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포함하여 누구나 예약 없이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 5월, 뉴욕주는 MTA와 협력하여 다양한 지하철역의 임시 접종 사이트에서 일회 존슨 & 존슨 백신을 제공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3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해당 장소에서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타임스퀘어-42번가와 잭슨 하이츠 루즈벨트 애비뉴/74번가에 있는 MTA의 임시 백신 접종 사이트에서도 현재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은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TA 임시 백신 접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부스터샷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